

# 동물년의 선택

written by Dike

★이 작품은 픽션이며, 현실의 인물, 정당, 제도,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동물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 정치 우화소설로, 작가의 창작적 상상력과 해석에 기반합니다.

★정치 풍자와 사회 비판을 위한 예술적 표현으로, 독자의 비판적 사고를 기대합니다.

1부 1화. 끓는 물 속 개구리 증후군

하나림력 2124년 12월 3일,

하나림 왕국.

도시는 평온해 보였다.

광장 스크린에는 정의당의 슬로건이 큼지막이 떠 있었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롭게”

그 아래에는 살랭이의 환한 미소와 돼지들의 환호가 이어졌다.

병아리들은 휴대폰을 보며 걷고, 개구리들은 뉴스 대신 예능 프로그램을 소비했다.

거리 방송 스피커에서는 반복적인 음성이 흘러나왔다.

“민생 회복, 정의당과 함께!”

“보수-중도 대통합으로 하나되는 하나림, 애국당이 만듭니다!”

병아리 루키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누웠다.

지친 몸을 던지듯 침대에 눕고,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켜 유튜브를 보다가

무심코 라디오 앱을 눌렀다.

스마트폰에 긴급속보 알림이 떴다.

【속보】하나림 왕국 비상계엄 선포

오후 10시 30분 곰의 특별담화 방송 생중계

곧이어 TV 화면에 검은색 정장, 붉은 넥타이를 맨 곰이 등장했다.

정면을 응시한 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헌법 질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림 왕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카메라는 곧 하나림의회 의사당으로 전환되었다.

쥐들(정의당)과 박쥐들(애국당)이 줄지어 몰려들었다.

그 중심엔 살랭이가 있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 선 그는,

마치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는 지도자라도 된 듯

천천히 고개를 들고, 단호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고 라이브 방송을 켜다.

“국민 여러분, 들으셨죠?

계엄선포는 불법이고 위헌입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그는 의회의사당의 철문 앞에서 목청껏 외치더니

담을 훌쩍 넘는 퍼포먼스로 시선을 끌었다.

하지만 정작 옆문은 열려 있었다.

박쥐들은 신분증을 꺼내 들고 조용히 입장 중이었다.

누구도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다.

의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간 살랭이는

총을 들고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는 군인의 총을 붙잡고

“이거 낫. 이거 안 낫?”라며 또 한 번의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다음 날 새벽 4시 30분 - 해제 선언

병아리들은 TV 앞과 스마트폰 앞에 얼어붙어 있었다.

곰이 계엄을 선포했지만, 몇 시간 뒤 스스로 철회한 것이다.

“계엄을 했는데 왜 이렇게 금방 해제했지?”

“곰 미친 거 아냐?”

“자충수네, 자폭했네.”

커뮤니티와 SNS는 혼란스러웠고,

언론은 실시간으로 속보를 내보내며 불안감을 조성했다.

병아리 루키는 그저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루키는

전날 밤, 무심코 켜던 그 라디오 방송을 떠올렸다.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려던 말들이

지금에 와서야 가슴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병아리는 본능적으로 움찔했다.

곰이었다.

낮익지만, 어쩐지 낯설게 느껴지는 그 목소리.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무언가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위로처럼 들렸지만, 한편으로는 유언처럼 들리기도 했다.

“저희들을 믿고...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의 정적.

숨을 고르는 듯한 숨소리 뒤에, 마지막 한 마디가 흘러나왔다.

“여러분들... 저 믿으시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라디오는 갑자기 꺼지듯 끊겼다.

어색한 침묵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그 순간, 루키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먹먹함에 사로잡혔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다.

‘그날, 그가 했던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

## 1부 2화. 프레임 전쟁

하나림 왕국 전역이 흥흥했다.

곰의 계엄 선포 이후, 언론은 광란의 보도 경쟁에 나섰다.

“내란을 꿈꾼 수괴가 마침내 군대를 움직였다!”

“곰, 왕국 전복 시도 정황… 하나림 역사상 초유의 사태!”

문명방송, 정중앙방송, 그 외 거의 모든 방송국이 일제히 긴급 속보를 쏟아냈다.

모든 채널이 곰을 가리키며 외쳤다.

“내란수괴!”, “광기!”, “권력욕의 화신!”

쥐들은 흥분해 날뛰었다.

정의와 민주를 가장한 그들의 단상 위에서,

살행이가 탄핵소추안 발의서를 힘차게 내던졌다.

“곰은 국민을 배신했고, 헌정을 유린했습니다.

정의당은 이 땅의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곰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박쥐들은 침묵했다.

어느 누구도 곰을 지키지 않았다.

통합을 말하던 애국당 대표는 딱 한 마디만 내뱉었다.

“국민적 분열이 우려됩니다.

우리는 중립적 입장을 지키겠습니다.”

그때, 조용히 등장한 토끼.

짧고 단정한 말투, 냉철한 표정.

그는 마치 숙명처럼 한 문장을 던졌다.

“계엄이 정당했는가를 떠나… 지금은 나라가 무너질 위기입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저는 탄핵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순간, 회의장은 술렁였다.

곰의 곁을 지켰던 마지막 존재조차 등을 돌린 듯한 장면.

언론은 환호했고, 쥐들은 만면에 미소를 띠었다.

돼지들은 거리로 나왔다.

촛불이 다시 켜졌다.

“내란수괴 곰을 탄핵하라!”

“곰을 감옥으로!”

광장의 돼지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쳤다.

먹이를 위해서라면, 진실 따윈 중요하지 않았다.

츄바오제국의 돼지가면을 쓴 판다조차 그들 틈에 섞여 있었다.

‘정의의 분노’라는 깃발 아래, 탐욕과 거짓이 들끓었다.

곰은 침묵을 깨고 담화문을 발표했다.

“지금 정의당은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문명방송 뉴스 헤드라인은 이렇게 왜곡됐다.  
“곰, 끝내 국민과 싸우겠다 선언.”  
정중앙방송을 비롯한 방송국들은 이 멘트를 무한 반복했다.  
“곰, 국민과 싸우겠다.”  
“광기, 끝을 향해 달린다.”

그날 저녁,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곰은 내란 혐의로 기소되었다.  
병아리들은 혼란에 빠졌다.  
‘곰이 진짜 내란을 일으킨 걸까?’  
‘왜 아무도 그를 지키지 않았을까?’

그러던 어느 날,  
체포 직전 곰이 직접 촬영해 숨겨놓은 영상 하나가 유출되었다.  
핸드헬드로 흔들리는 프레임 속,  
곰의 눈빛은 지쳐 있었지만 맑았다.  
“사법체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불미스러운 유혈상태를 막기 위해 협조하겠습니다.”

그 순간, 병아리들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동안 보아왔던 뉴스와 전혀 다른,  
조작되지 않은 진짜 진실.

프레임 전쟁.  
그것은 말 한 마디, 문장 하나를 왜곡해  
한 존재의 운명을 뒤바꾸는 잔혹한 싸움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작은 불빛들이 켜지기 시작했다.  
병아리들이 광장을 향해 일어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루키도 있었다.  
언젠가 진실을 외칠 운명을 지닌 병아리, 루키.  
그는 이 싸움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었다.

## 1부 3화. 진실게임

하늘은 여느 때처럼 흐렸다.  
그러나 병아리들의 마음속엔  
전날 밤 그 영상이 번개처럼 내리쬘고 있었다.  
한 유튜버 병아리가 올린 10분짜리 폭로 영상.  
"계엄의 진짜 이유는 부정선거였다."  
그리고 '표심조율청에 상주하던 추바오국 해커들이 계엄일에 어디론가 이송됐다'는 내용이었다.  
영상이 퍼진 직후, 병아리들은 거리를 가득 메우기 시작했다.  
"탄핵 반대!" "Stop the steal!"이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고,  
수많은 병아리들이 홍익기를 흔들며 행진했다.  
그 대열 속엔 루키도 있었다.  
아직 확신은 없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본능적인 불안이  
그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었다.

병아리들의 물결 한가운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화려한 깃털과 확성기를 든 앵무새였다.  
그는 "곰은 하나림 왕국의 마지막 방패였다!"며 고함쳤고,  
그의 주변엔 이미 앵무새를 따르는 병아리 무리가 형성되어 있었다.  
루키는 그 무리와는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점점 많은 병아리들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반면, 돼지들이 이끄는 탄핵 찬성 집회는 예전 같지 않았다.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이따금씩 가면을 쓴 돼지들이 눈에 띄었다.  
그 중 일부는 이상하게도 행동이 어색하고, 목소리 억양이 미묘하게 달랐다.  
병아리들 사이에선 "저건 돼지가 아니라 판다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며칠 뒤, 곰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재판청 앞에 병아리들이 모였다.  
긴장감은 극에 달했고, 앵무새는 다시 모습을 드러내 군중들을 자극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정의를 위해 분노하십시오!"  
그의 선동에 몇몇 병아리들이 재판청 담장을 넘어 기물을 파손했고,  
바로 수십 마리의 개들이 들이닥쳐 그들을 체포했다.  
그 무리 속에는 그날 현장을 영상으로 생중계하던 너튜버 병아리,  
부리온도 포함돼 있었다.  
그날 저녁, 언론은 일제히 "폭력 시위대 난동"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했고,  
문명방송과 정중앙방송은 편집된 영상만을 내보냈다.  
정의당은 곧바로 내란동조 혐의로  
탄핵 반대 시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긴급 입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반전은 그 이후였다. 곰의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침묵하던 개구리들마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고,  
일부 언론과 학자들 사이에서는  
"곰의 계엄은 사실 계몽령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가 무너진 법치와 외세의 개입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것이라는 해석이었다.

탄핵 공판의 마지막 기일, 곰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조용히 고개를 든 그는 마지막으로 혼잣말처럼 읊조렸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돌고 돌아 이 나라를 깨울 것이다.  
나의 계엄은 침묵이 아닌, 시작이었다."  
그의 눈빛은 누구보다도 또렷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 2부 1화. 카오스

회색빛 하늘 아래, 어딘가 뒤틀린 정적이 깔려 있었다.  
곰은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되었다.  
하지만 그의 탄핵 심판 선고는 아직 남아 있었다.  
“곰님, 힘내세요!”  
“우린 진실을 원해요!”  
병아리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고, 손엔 흥익기가 들려 있었다.  
그 깃발은 피로 물들지 않은 평화를 바라는 병아리들의 외침이었다.  
곰은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천천히 걸어 나왔다.  
탄핵안 가결 이후 첫 외부 등장.  
모두의 눈이 그를 향했다.  
잠시 걸음을 멈춘 곰은 병아리들을 바라보았다.  
열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손을 들어 흔들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손짓 하나에 병아리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왕국은 곰이 돌아온 그날,  
잠시 숨을 고르는 듯 보였지만  
곧 예고 없이 몰아치는 격랑 속으로 휘말려들었다.

“또 집회야?”  
루키의 엄마는 고개를 젓고 주방 수세미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엄마, 난 지금 이 나라가 너무 이상해서...”  
“그렇다고 내가 뭘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늦은 밤, 루키는 매일같이 집회에 나가느라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엄마의 회의적인 눈빛은 더 큰 피로를 안겼다.  
“내가 아무리 외쳐도 세상은 쉽게 안 바뀌어.  
누가 지도자가 되든, 우린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야.”  
루키는 엄마의 무관심과 체념이 안타까웠다.  
“엄마는 진짜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린 소시민이야. 소시민은 순응하면서 사는 거야.”  
그 말에 루키는 아무 말 없이 방문을 닫았다.  
답답한 공기가 집 안을 가득 메웠다.

병아리들이 탄핵 선고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하나림 왕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다.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수많은 동물들이 보금자리를 잃었다.  
정의당은 정부의 무능을 탓했고,  
애국당은 정의당이 재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국수와 정무청장, 안전부 장관까지 줄줄이 탄핵시킨 결과라고 비판했다.



책임 공방 속에 동물들의 고통은 계속되었다.

“이게 다 곰 때문이야!” 쥐들은 외쳤고,

“그런 구조를 만든 건 정의당이다!” 박쥐들이 맞받아쳤다.

그날, 정의당 대표 살팽이는 쥐들을 이끌고 화재 피해 지역을 방문했다.

일부 주민들의 항의를 받던 중,

살팽이가 중얼거리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에이 C발...”

이 장면은 생생하게 방송되었고, 논란이 일파만파 퍼졌다.

아침쥐는 급히 해명했다.

“그건 단지 호흡 소리일 뿐입니다. 억측은 자제해 주십시오.”

탄핵 선고를 하루 앞둔 밤,

병아리들은 마지막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홍익기를 든 병아리들, 늙은 암탉과 수탉들도 자리를 지켰다.

무대 위엔 앵무새가 있었다.

여느 때처럼 힘찬 목소리로 병아리들을 선동했다.

루키는 그 인파 속에서 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부리온...?”

“루키! 여기 있었네요.”

두 병아리는 잠시 옆 골목으로 빠져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계엄 전에는 몰랐는데,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루키가 말했다.

“분명 내가 살던 세상은 어제와 오늘도 똑같은 곳일 텐데,

뭐가 달라진 걸까요?”

부리온은 씩씩한 웃음을 지었다.

“매트릭스 영화 봤어요?”

“네?”

“당신은 빨간 약을 먹은 겁니다.

진실에 눈을 뜨면서 지옥을 보게 된 거죠.”

잠시 정적이 흘렀다.

“계엄이 있었던 작년 12월,

황혼공항에서 일어난 비행기 추락사건 기억나요?”

루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상자가 181명이나 되는 대형 참사였는데,

이상하게 너무 조용히 넘어간 것 같아요.

침연호나 사태원 참사 땀 분위기가 완전 달랐잖아요.”

부리온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한 일들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어쩌면 몇 십년 전부터 저들의 계획은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2부 2화. 짜여진 판 1

회색 구름이 낮게 깔린 하늘 아래,  
하나림 왕국의 심장부가 숨을 죽이고 있었다.  
오늘은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었다.  
근법청 정문 앞,  
수십 대의 방송 카메라와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몰려 있었다.  
서터 소리, 방송 마이크, 생방송 중계차에서 터져 나오는 앵커들의 목소리가  
혼란스럽게 뒤엉켰다.  
“보인다! 나온다!”  
순간 수십 개의 플래시가 터졌다.  
엄숙한 법복을 입은 여우 재판관들이 하나둘씩 등장했다.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어딘가 이질적인 무게가 느껴졌다.  
그중 선두에 선 달여우는 유난히 굳은 얼굴로 계단을 올라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건 제가 읽는 대본이지만 제가 쓰는 게 아닙니다.  
TF팀에서 올린 것이고, 제가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의 과거 발언은 지금 이 순간을 예고한 듯,  
광장에 퍼져 있는 병아리들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고 있었다.

근법청 주변은 이미 진영별로 양분된 상태였다.  
한쪽에는 곱을 지지하는 병아리들, 늙은 수탉과 암탉들이 흥익기를 높이 들고 있었다.  
“곱님은 죄가 없습니다!”  
“탄핵을 기각하라!”  
“부정선거의 진실을 덮지 마라!”

반대편엔 돼지 세력과 광장 정치꾼들이 동원한 인파들,  
그리고 엄청난 수의 경찰견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돼지들은 획일적인 피켓을 들고 탄핵 찬성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내란수괴 곱을 처벌하라!”  
“헌정질서를 파괴한 자에게 정의를!”  
“곱은 감옥으로!”  
경찰견들은 병아리 무리를 벽처럼 막고 있었고,  
일부는 곱 지지자들의 얼굴을 일일이 촬영하고 있었다.

곱 지지 무리 속의 한 편에는,  
루키와 부리온도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루키는 불안한 듯 중얼거렸다.  
"당연히 기각 결정이 나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수능시험 때보다 지금이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부리온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말했다.

"지켜보면 알겠죠."

그 순간, 근법청 안에서 직원들이 자리를 정돈하며 선고 방송 준비를 마쳤다.

정적이 감돌았다.

방송 화면에는 법정 안에 정렬한 여우 재판관들이 클로즈업되었고,

심장 박동 소리가 귀에 맴도는 듯한 정적이 광장을 삼켰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곰을… 파면한다.”

“아니야...!!”

“말도 안 돼!!”

“이게 나라냐!”

광장 한켠에서 병아리들의 탄식과 울분이 터져 나왔다.

흥익기를 쥔 손이 떨리고, 늙은 수탉과 암탉들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반대편 돼지들은 포효하듯 환호했다.

플래카드가 흔들리고, 개 경찰들은 묵묵히 주변을 통제했다.

“해냈다!!”

“이제 살쾅이 시대다!”

“곰은 끝났다!”

그 장면은 TV로 생중계되었고,

화면 너머에서 살쾅이와 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샴페인을 터뜨렸다.

살쾅이는 잇몸을 드러내며 웃었고,

신내림쥐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외쳤다.

“예측 적중입니다!”

그러나 토끼는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무언가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결심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편, 경호를 받고 있던 곰도

어느 관저의 한 방에서 조용히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떨구며, 작게 중얼거렸다.

“결국...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

그 순간, 곰의 눈앞으로 오랜 기억들이 밀려들었다.

(회상)

“축하드립니다. 곰님, 기소총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처음 기소총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그는 그저 정의를 따르겠다는 일념 하나였다.

그러나 곧 맞닥뜨린 건 거대한 벽이었다.

수사의 칼끝이 권력 핵심으로 향하자,  
압박과 사보타주, 인사권 남용이 쏟아졌다.  
“이건... 기소청 독립이 아닙니다.”  
그는 결국 사퇴서를 냈다.

“곰님, 출마하셔야 합니다.”  
누군가의 권유에 처음엔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그는 하나림 왕국을 다시 바로 세우겠다는 각오로  
국선 출마를 결심했다.  
그리고... 기적처럼 당선되었다.

“퇴진하라! 독재를 멈춰라!”  
그의 임기 첫날부터, 광장에는 돼지들이 몰려와 고함을 질렀다.  
무슨 일을 해도 쥐들은 발목을 잡았고,  
언론은 그를 ‘무능한 공처가’로 몰아갔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았다.  
성장 중심 산업 육성, 원전 부활, 우주·과학기술 투자, 외교안보 강화...  
하나림 왕국의 역량은 점차 살아났다.

그러나 의선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정의당 175석, 단독 입법 구조 완성.  
정의당은 이를 바탕으로 국수실 참모와 장관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행정부는 마비됐다.  
예산도 전례 없이 삭감되었다.  
감사국, 기소청, 국수실은 칼질을 당했고,  
재난 대응용 예비비조차 깎였다.  
안보에 필수적인 스파이법 개정안은 막혔고,  
결국 하나림의 안보 기밀과 산업 기밀이 추바오제국으로 속절없이 유출되었다.  
그 와중에도 표심조율청에 대한 감사 요구는  
‘우리는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완강히 거부당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책상 위에, USB 하나가 도착했다.  
그 안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정보와 기록,  
그리고 경악할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는 오랜 침묵 끝에, 조용히 입을 열었다.  
“누군가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내가 하는 게 맞겠지?”

그날 밤, 곰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동물과 마주했다.  
상대는 말없이 곰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세상 모두가 당신에게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곰은 땀땀히 고개를 들었다.

“난 어쩐 일인지 옛날부터 겁이 없었어.

내가 던진 돌이 나비효과를 일으킨다면...

한 번 해볼 만한 일이지 않겠나?”

2부 3화. 짜여진 판 2

회색빛 안개가 아스팔트를 뒤덮고 있었다.  
곰의 파면 선고가 내려진 날,  
광장은 믿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얼어붙은 채였다.  
루키는 주저앉듯 인도블록에 털썩 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홍익기 깃발이 힘없이 바닥에 닿았다.  
부리온이 곁으로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괜찮아요?”  
루키는 대답 대신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근법청이 편향됐다고 해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는 나직하고 떨렸다.  
“그래도 사법부의 정의는 살아있을 줄 알았는데…  
살행이 2심에서 무죄를 줬을 때도 설마 했지만…”  
부리온은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빛 하늘 아래,  
희망을 말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하루였다.  
“…어쩌면 이 모든 게 짜여진 판이었는지도 모르죠.”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살행이조차도 그들의 꼭두각시일지 몰라요.  
판의 설계자는 따로 있고요.”

그때, 옆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네들, 오늘 처음 나온 얼굴은 아니구먼.”  
고개를 돌리자, 낡은 조끼를 걸친 수탉 한 마리가 서 있었다.  
그는 깃털 끝에 먼지를 잔뜩 묻힌 채, 천천히 다가왔다.  
“혹시… 조계님?”  
부리온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홍익기부대라 부르든 말든 상관없지.”  
조계가 씩씩하게 웃었다.  
“하지만 이 늙은 수탉,  
그냥 떠들러 나온 건 아니라네.”  
루키는 그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이따금 영상에서 보던 바로 그 인물이 눈앞에 서 있었다.  
“저들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힘을 키워왔고  
사회 요직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지.  
나와 여기 있는 암탉, 수탉들이

아스팔트 위로 나온 지도 벌써 10년이 됐지만…  
저들이 들인 공에 비하면 미미한 시간일지도 몰라.”  
루키는 입을 다문 채 조계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높고 거친 말투였지만,  
그 속엔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러니 너무 절망할 필요도,  
낙담할 필요도 없다네.”  
조계는 루키의 어깨에 조심스레 날개를 얹었다.  
“동틀 무렵이 가장 어두운 법이니까.  
하지만 바로 그때, 새벽은 시작되는 걸세.”  
세 마리는 말없이 그 자리에 섰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조계의 말은 오래도록 귓가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루키는 똑똑히 느꼈다.  
이 날의 절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 무렵, 곰은 조용히 자신의 사저로 돌아왔다.  
그를 맞이하기 위해 수많은 지지자들이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중 몇몇은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흔들었고,  
한 암탉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곰은 그 암탉 앞에 멈춰 섰다.  
잠시 침묵하던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였을까?  
아니면,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을까?

며칠 뒤, SNS와 거리에서는 ‘BEAR AGAIN’ 운동이 조용히 시작되었다.  
“곰을 다시!”  
“곰의 귀환을 원한다!”  
병아리들은 자발적으로 깃발을 들고 거리로 나섰고,  
곰의 정신을 본받아 반국가 세력 척결을 외쳤다.  
“살행이를 심판하라!”  
“표심조율청을 수사하라!”  
루키와 부리온도 그 현장에 있었다.  
하지만 둘의 표정은 복잡했다.  
“뜻은 정말 좋지만… 이걸로 판을 바꿀 수 있을까요?”  
부리온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루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감정에만 기대면, 저들에게 빌미만 줄 뿐이에요.  
조직과 전략이 없으면 안 돼요.”



그사이 정국은 숨 가쁘게 흘러갔다.  
근법청의 판결 직후,  
정부는 나무늘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었고,  
조기 국선 일정이 급박하게 확정되었다.  
정의당은 예상대로 살랭이를 국선 후보로 추대했다.  
그는 파면의 책임을 곰에게 돌리며 “진짜 하나림 왕국을 만들겠다”고 외쳤다.  
반면 애국당은 혼란에 빠져 있었다.  
계엄 직후부터 곰과 선을 그어온 박쥐 정치인들은  
각자 자신의 생존을 도모하며 후보군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였다.  
“곰과 거리를 뒤편 중도를 잡을 수 있다.”  
“지금은 정의당과의 차별화가 더 중요하다.”  
“다시 곰을 부르면 선거를 망친다.”  
이런 내부 혼선은 결국 병아리 세력의 분열로 이어졌다.  
누군가는 BEAR AGAIN 운동을 계속 외쳤고,  
누군가는 토끼를 중심으로 새로운 보수 개혁을 외쳤으며,  
또 누군가는 “이제 정치엔 희망이 없다”며 좌절하고 등을 돌렸다.  
광장은 더 이상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갈라진 틈 속에서도  
누군가는 꺼지지 않는 불씨를 지켜보고 있었다.

### 3부 1화. 개와 늑대의 시간

노을은 붉게 물들었고,  
하나림 왕국의 들판은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그 시간은 개와 늑대의 시간.  
어둠과 빛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아군과 적을 구별할 수 없는 순간이었다.

살팽이는 거침이 없었다.  
정의당의 예선 무대는 그를 위한 쇼처럼 보였다.  
허수아비 후보들은 들러리에 불과했다.  
“하나림 왕국을 다시 살릴 자, 오직 살팽이뿐입니다!!”  
곧이어 발표된 예선 결과.  
“살팽이, 89.8%의 압도적 득표로 정의당 국선 후보로 확정!”  
언론은 열광했고,  
문명방송과 정중앙방송은 그를 ‘국민적 지도자’라 치켜세웠다.  
그러나 병아리들은 이제 다 알고 있었다.  
그가 서 있는 자리가, 진실과는 너무도 먼 곳이라는 걸.

한편, 애국당은 혼돈에 빠져 있었다.  
공천권을 두고 수많은 박쥐들이 뒤엉켰고,  
각자의 셈법으로 ‘미래’를 재단하고 있었다.  
“토끼가 다시 나왔대.”  
“한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지. 어딜 감히...”  
그렇다.  
탄핵 정국에서 고뇌의 선택을 했던 토끼가 다시 한번 예선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엔 토끼 혼자만 아니었다.  
조용히, 그러나 묵직한 존재감을 가지고 등장한 또 하나의 이름.  
바로 대쪽박쥐였다.  
노동운동가 출신, 과거 정의당의 상징이었던 이가  
이제는 누구보다 강직한 보수의 아이콘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계엄직후, 애국당을 향해 질책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던 쥐들,  
모든 박쥐들이 고개를 숙일 때  
홀로 꼴꼴이 앉아 있던 한 마리의 박쥐.  
“난 잘못된 게 없소.  
정의당에 고개 숙일 이유도 없고.”  
그 한마디는, 곱을 잊지 못하던 병아리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예선은 팽팽한 2강 구도로 이어졌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다.

“애국당 국선 후보: 대쪽박쥐”

토끼는 미련 없이 물러났다.

“당원들과 국민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결과에 승복합니다.”

하지만 애국당의 내부는 여전히 혼란 그 자체였다.

“그래도 정무청장 출신이 낫지 않겠어?”

“대쪽박쥐는 너무 원칙적이야.

마음대로 주무르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들은 국선 후보로 나무늘보 정무청장,

현 국수 권한대행을 밀기 시작했다.

심지어 일부 박쥐 의원들은

대쪽박쥐의 국선 후보 자격을 무효화하고,

후보를 강제로 교체하려는 시도를 했다.

“어차피 이번엔 승산이 없어.

그냥 살팽이랑 타협해서 살 길을 도모하자.”

그 결과, 보수 지지층은 갈라졌고,

설상가상으로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들은

살팽이의 지지율이 치솟고 있다고 보도하기 시작했다.

“살팽이 지지율, 52.8%… 압도적 1위!”

하지만 병아리들은 속지 않았다.

지지율이 아니라 조작율이었다.

대쪽박쥐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방탄복을 입고 다니는 누구와 다르게 떳떳합니다.

그래서 당당합니다.”

“정치란, 그저 권력을 잡는 일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정의로 다시 서야 하는 일이죠.”

지사 시절의 경제성과,

장관 시절의 청렴한 행적이 재조명되면서

살팽이와의 대비는 더욱 극명해졌다.

거짓말, 조작과 은폐, 부정부패,

측근의 의문사, 가족 비리,

살팽이는 그 모든 것을 안고도

‘당당한 지도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대재판청에서 중대한 결정이 나왔다.

“살팽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병아리들에게 실낱같은 희망이 보였다.

“그래도 정의의 마지막 보루는 살아 있었던걸까?”

“드디어... 진실이 이기나?”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해진 소식은 그들을 다시 주저앉혔다.

“고등재판청, 판결 선고, 국선 이후로 연기 결정”

다시 어둠이었다.

정의는 살아있을지도 몰랐지만, 그 정의는 너무 느리고,

그 사이에 살팽이는 모든 재판을 회피할 수 있었다.

그는 반드시 국수가 되어야 했다.

그래야 모든 재판을 ‘정치 탄압’으로 덮을 수 있었고,

면책특권의 방패를 들 수 있었다.

그리고,

해가 완전히 저물었다.

어둠 속에서 병아리들은 서로를 불렀다.

“뭉쳐야 해.

우리가 분열되는 게 저들이 가장 바라는 거야.”

“아직 늦지 않았어...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러나 이미 개인지 늑대인지 분간할 수 없는 시간.

희망인지 절망인지조차 헷갈리는 그 시간.

그들이 맞서야 할 건,

단지 살팽이 하나가 아니었다.

거대한 기만, 그 뒤에 숨은 제국.

그리고 ‘자기 편’인 척하던 이들까지.

개와 늑대의 시간.

그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3부 2화: 외로운 싸움

시간은 흘러 국선이 다가오고 있었다.

또다시 주어진 선택.

하지만 그 선택이 과연 자유롭고 공정한 것인지,

병아리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림 제1 통신사인 KST에서

전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해킹사건이 발생했다.

루키는 뉴스 화면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 타이밍에 이런 사건이 터진다고? 선거를 앞두고?…'

병아리들의 SNS에는 이미 걱정과 분노가 뒤섞인 글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이거... 선거에 악용되는 거 아냐?"

"이건 그냥 정보유출이 아니라, 선거조작의 예고편일지도 몰라."

루키의 의심도 견잡을 수 없이 커졌다.

'털린 정보가 조작에 쓰일 수도 있잖아.

부정선거에 이용되면 어떡하지…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

루키는 답답한 마음을 안고 진표연대의 모임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병아리들과 닭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 중에는 부리온과 조계도 있었다.

진표연대.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히고,

더 이상의 조작을 막기 위해

병아리들과 닭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시민연대.

이 단체의 중심은 바로 거북이었다.

오래전부터 침묵 속에서 감시를 이어온 존재.

묵직한 발걸음으로 천천히 진실에 다가가는 이 느린 동물은,

결국 이번 국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누군가는 막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꼭,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북의 곁에는 의계가 있었다.

진표연대의 행동대장이자 전략기획자.

젊고 예리한 수탉.

오늘, 의계가 단상에 섰다.

병아리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우리는… 그동안 음모론자라 불려 왔습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린다, 불신을 조장한다, 사회를 분열시킨다…

그렇게 우리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계엄일, 그날... 우리가 들었던 소식, 기억하십니까?  
표심조율청의 서버가 계엄군에 의해 확보되었다는 그 소식 말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 생각했죠.  
‘드디어 모든 것이 드러나는구나.’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이 나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겠구나...”

의계는 잠시 말을 멈추고, 병아리들을 둘러보았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누군가는 부리를 깨물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로.  
오히려 거짓은 더 정교해졌고,  
조작은 더 교묘해졌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그날처럼,  
또 다시 주권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단호해졌다.

"박쥐들이 우리 편일 거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글리아가 도와줄 거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주권자가 외면한 진실은 독수리도 도와줄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직접 행동해야 합니다."  
이번 국선,  
우리는 진실을 지킬 마지막 선을 그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거북의 선거참관인이 되어...  
눈으로, 발로, 진실을 지켜냅시다.  
우리가 물려서면,  
하나림의 미래는 ... 없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차가운 바람이 골목을 스쳤다.  
루키는 생각에 잠긴 듯 조용히 걷다가 입을 열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몰랐어요...  
저만해도 부정선거에 대해 무지했었고,  
언론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다룬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부리온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열었다.  
그는 책 한 권을 꺼내 루키에게 건넸다.

표지에는 ‘도둑맞은 표 : STOP THE STEAL’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의계님은 몇 년 전부터 선거무효소송의 변호사로 활동했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이 책을 집필했죠.

대재판청의 판결과,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아주 자세히 짚고 있어요.”

루키는 책을 소중히 받아들이고 가만히 표지를 쓰다듬었다.

잠시 땀을 들인 후, 다시 입을 열었다.

“계엄 덕분에 눈을 뜬 동물들도 있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동물들은 부정선거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극우의 음모론이라고 단정 짓고 있잖아요.

투표야말로 주권의 핵심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문제를 모두가 외면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 조용히 걷던 조계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다.

“천동설을 믿던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지동설을 접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나?

자신이 믿던 세상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진실을 마주하면

대부분은 두 가지 부류로 나뉘게 되지.

하나는 외면하고,

다른 하나는 격렬히 거부하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난 진표연대의 동물들처럼,

그 진실을 직면하고, 받아들이고, 결국 행동에 나서는

소수의 파이어니어들도 생기기 마련이지.

세상을 바꾸는 물꼬를 트는 자들은

언제나 그런 파이어니어들이었고..”

잠시 적막이 흘렀다.

어느새 하늘은 어스름한 붉은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가로등 아래에서 거대한 현수막 하나가 바람에 펄럭였다.

“이제부터 진짜 하나림.”

살행이의 얼굴이 큼지막하게 박힌 선거 홍보물이 공허한 하늘 아래 매달려 있었다.

선명한 문구와 함께, 누군가의 거짓된 약속처럼

현수막은 바람에 설 새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루키와 부리온, 조계는 걸음을 멈추고 그 현수막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말없이. 아주 오래도록.

그들의 눈빛엔 분노도, 절망도 아닌 각오가 깃들어 있었다.

이 싸움이 얼마나 외로운 길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길을 멈추지 않으려는 단단한 마음이,

그들의 걸음을 다시 앞으로 내딛게 했다.

한편, 머나먼 동쪽 하늘 저편,

이글리아에서 붉은 깃털을 단 독수리들이  
조용히 하나림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그들은 말을 아꼈고, 소리 없이 움직였다.  
선거정의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 민간 조직.  
맥도널드 독수리의 측근들로 구성된 그들.

과연 그들은, 안개 자욱한 하나림 왕국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어줄 수 있을까?



### 3부 3화. 판도라1

절대 열지 말라던 상자.  
그 안에 모든 재앙이 갇혀 있었고,  
상자가 열린 순간, 세상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그날 우리가 본 것은…  
열어선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였던 걸까?”

사전투표 첫날.  
루키는 선거참관인 자격으로 지정된 투표소에 들어섰다.  
진표연대에서 훈련받은 대로 주의 깊게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저 돼지… 아까도 봤는데?”  
루키의 시선이 향한 곳엔 어딘가 낯익은 돼지가 다시 줄을 서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다가가 말을 걸었다.  
“혹시... 다시 줄 서신 건가요?”  
돼지는 뻔뻔하게 웃으며 루키를 힐끗 올려다보더니  
가방을 옆으로 돌렸다.  
그 안에서 여러 개의 신분증이 우수수 쏟아졌다.  
“이건 뭐죠?  
이건 명백한… 중복 투표 시도 아닙니까?”  
“너 뭐냐? 공무원이야? 감히 누구 의심해?”  
팽팽한 대립.  
표심조율청 직원이 다가와 상황을 중재하는 척하며 돼지를 데려갔다.  
루키는 안심했지만,  
잠시 후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채 돼지가 유유히 나가는 모습을 보고,  
말문이 막혔다.

그날 하루 동안 루키는 총 세 건의 문제 상황을 목격했다.  
1. 자기 신분증과 남편 신분증을 이용해 두 번 투표한 돼지.  
→ 루키는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2.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으로 투표하려던 돼지.  
→ 루키가 강하게 항의해 해당 투표는 막았다.  
3. 투표용지를 받은 뒤 식사하러 갔다 돌아온 돼지 무리.  
→ 표심조율청 직원에게 항의했지만, 돌아온 건 철저한 무시였다.  
모든 상황을 정리한 루키는,  
참관이 끝난 뒤 부리온에게 전화를 걸어 보고했다.  
부리온은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진표연대의 참관인들로부터  
같은 유형의 제보를 수십 건 이상 수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부리온은 너튜브 방송을 켜다.

“여러분, 오늘 전국의 투표소에서 목격된 장면들입니다.

여러 개의 신분증으로 중복투표,  
같은 신분증으로 투표소 여러 곳을 돌며 중복투표  
유효기간 지난 신분증도 확인절차 없이 허용  
외부로 반출되었던 투표용지로 투표 완료 처리  
수상한 행동을 제지해도, 그 자리서 무마되거나 방치  
이런 절차적 하자를 묵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표를 도둑맞고 있는 것입니다!!“

SNS에서는 살행이 표 인증샷 챌린지가 떠돌았다.  
돼지 가면을 쓴 판다들이 투표용지를 들고 “한표 행사 완료!”라며  
괴기한 춤을 추는 영상이 퍼졌다.

사전투표 둘째날,  
구불구불한 줄 끝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고개를 내밀었다.  
그녀는 평범한 동물이었다. 정치엔 별 관심 없었다.  
그저 나라가 조용하길 바랐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어딘가 이상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투표소로 향한 것이었다.  
투표소에 들어선 개구리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내밀었다.  
표심조율청 직원이 봉투를 건넸다.  
그녀는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다.  
그리고 순간, 숨이 멎을 뻔했다.  
“이건… 뭐야?”  
투표지.  
그 안에는, 분명히,  
살행이의 이름 옆에 이미 도장이 찍혀 있었다.  
개구리는 얼떨결에 손에 든 그것을 들고 직원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이거… 이미 찍혀 있어요. 살행이로…”  
직원은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굴리더니,  
아무 말 없이 개구리의 손에서 투표지를 뺏어 들고 안쪽 사무 공간으로 사라졌다.  
개구리는 어안이 벙벙했다.  
주변 사람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 순간, 이 장면을 지켜보던 루키가 공장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다.  
“투표소에서 이미 기표된 투표지를 나눠줬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잠시 후,  
투표소 안에 낯선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리고 돌아온 직원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엔, 돼지 한 마리가 따라왔다.

표심조율청 배지를 달고 있었다.  
“이분이십니까?” 돼지가 개구리를 가리켰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돼지는 개구리 앞에 섰다.  
“투표용지를 훼손하신 건가요?”  
“아니요. 훼손이 아니라…  
처음부터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돼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런 증거가 어디 있죠?”  
지금 이 상황이 자작극이라는 의심이 드는군요.”  
“자작극이요!?” 개구리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돼지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일부러 도장을 찍은 뒤에 문제 삼으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선거를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죠.”  
선거를 방해?  
그 순간, 개구리는 눈앞이 아득해졌다.  
내가? 내가 뭘 했다고…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동안 뉴스에서 봐왔던 ‘음모론’이라는 단어,  
그 모든 것들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라 여겼다.  
하지만 지금, 이건 내 일이 되었다.  
“말도 안 돼...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줄은...”  
개구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루키가 그녀의 옆으로 조심스레 다가왔다.  
“괜찮아요. 제가 다 봤으니 증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주변은 여전히 무관심했고,  
표심조율청 직원들의 표정에는 여유마저 깃들여 있었다.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 같았다.

그리고 그날 밤, 진표연대의 공유 채팅방에는 루키가 남긴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전투표장에서 발견된 ‘기표 완료 투표지’.  
더 이상은 우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댓글이 줄을 이었다.  
“곰님은 이 모든 걸 알고 계셨구나.”  
“이건 실수가 아니라 조작이다.”  
“우리, 더는 침묵하지 말자.”  
눈을 뜨기 시작한 개구리들이 있었다.  
그들의 몸은 노랗게 변해 가고 있었다.

이틀간의 사전투표가 끝났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 해도 충격이었다.  
병아리들은, 그리고 노란 개구리들은 참을 수 없었다.  
이건 단순한 부실관리가 아니었다.  
“조작”, “계획된 범죄”,  
그 단어가 입에서 돌처럼 무겁게 튀어나왔다.

그날 밤. 표심조율청 정문 앞.  
손에 손을 맞잡은 병아리들과 노란 개구리들이 촛불을 들고 모여들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바람을 가르며 터져나왔다.  
“부정한 선거를 멈춰라!”  
“표심조율청을 해체하라!”  
“표심조율청장 no여우를 구속 수사하라!”  
밤이 깊어졌지만, 함성은 멈추지 않았다.  
몸을 맞댄 그들은 떨었고, 외쳤고,  
절박함은 빗방울처럼 퍼져나갔다.  
그러나 이상했다.  
맞서 싸워야 할 애국당은 침묵했고,  
‘정의와 원칙’을 입에 달고 살던 대쪽박쥐 캠프도 조용했다.  
병아리들은 기대했다.  
최소한, 대쪽박쥐는 입장을 내줄 거라고.  
그런데 정작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고요했다.  
“왜 아무 말이 없지?”  
“지금 이 상황이면 선거 중단을 요구해야 하는 거 아냐?”  
“혹시, 애초에 믿을 아군이 없었던 건가...”  
누군가는 말했다.  
“이대로 본투표가 강행되고 결과가 발표되면, 모든 게 끝난다.  
그땐 ‘재검표’도 ‘수사’도 소용없어.  
이미 승복과 정당성이 선점당할 테니까...”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막아야 한다.”  
어디선가 닭 한 마리가 힘겹게 복을 두드렸다.  
그 복소리에 발을 맞춰 병아리들이 다시 외치기 시작했다.  
“불공정한 선거를 멈춰라!”  
“표심조율청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병아리들은 지켜보고 있다!”  
하늘은 어두웠고, 표심조율청의 불빛은 차가웠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표심조율청 인근에서 잠복 중인 또 다른 진표연대의 병아리들이 있었다.  
부리온도 그 자리에 있었다.  
"뭔가 수상한 냄새가 있어. 그냥 끝날 리가 없어."

그 순간이었다.

조울청 뒤편, 어둠 속에 가려진 후문이 조용히 열리고  
번호판이 가려진 의문의 트럭 한 대가 조심스레 들어섰다.

“저 트럭… 뭐지?”

부리온이 숨을 죽이며 카메라 줌을 당겼다.

트럭 문이 열리자,

검은 복장을 한 두더지 몇 마리가 빠르게 상자를 내려 트롤리에 실었다.

그 상자들은 모두 같은 크기, 같은 모양, 봉인 스티커까지 붙어 있었다.

“이 시간에, 이런 물량을…?”

부리온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투표함이랑 똑같은 크기인데?”

다른 병아리가 중얼거렸다.

잠시 후, 트럭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빠져나갔고,

상자들은 표심조울청 내부 어딘가로 사라졌다.

부리온은 가슴이 조여왔다.

‘설마… 저 안에 들어있는 게 표가 맞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가 조작되고 있는 건가?’

그날 밤, 진표연대 단톡방에 올라온 부리온의 메시지.

“오늘 밤 표심조울청 후문, 의문의 트럭과 미확인 상자 다량 확인. 영상 확보.

본 투표 전까지 이거 퍼뜨릴 수 있는 모든 채널로 보내자.”

누군가가 물었다.

“그 상자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

부리온은 한 줄만 답했다.

“판도라의 상자…”

### 3부 4화. 판도라2

새벽 공기가 아직 축축한 기운을 머금고 있었다.  
루키는 밤새 촛불을 들고 표심조율청 앞을 지켰다.  
함께 외치던 병아리들과 뒤섞여 있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부정한 선거를 멈춰라!”  
“표심조율청을 해체하라!”  
동물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해가 동틀 무렵이 되어서야 루키는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지친 몸을 이끌고 현관을 열고 들어왔을 때,  
실내는 이상하리만치 따뜻하고 조용했다.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줄기에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골랐다.  
그동안의 일들이 떠올랐다.  
두 눈으로 본 중복투표와 이미 기표된 투표지,  
무반응의 표심조율청 직원들, 투표함 운송 때 갑자기 끊긴 CCTV 녹화, 그리고…  
그날 밤 함께 울던 병아리들의 떨리는 목소리.

물기를 닦고 나와 거실로 들어섰을 때,  
식탁 위엔 따뜻한 밥과 국, 여러 가지 반찬이 한가득 차려져 있었다.  
루키는 순간 멈칫했다.  
“아침 든든하게 먹고 가.  
하루 종일 참관하려면 기운이 있어야지.”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국을 휘젓던 엄마가 말했다.  
루키는 말없이 식탁 앞에 앉았다.  
탄핵반대집회 참여 문제로  
엄마와 한바탕 큰소리를 낸 뒤에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  
머쓱하고, 미안하고, 고마운 감정이 뒤섞였다.  
엄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는… 엄마다 보니까,  
나라 걱정보다도 네가 더 걱정됐어.  
옳은 일 하는 거 알면서도,  
혹시 너가 다칠까봐 겁났어.  
괜히 나서다가 잡혀가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까봐…”  
루키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엄마는 담담한 표정으로 이어갔다.  
“그동안 엄마도 많이 공부했어.  
아들은 최전선에서 행동하는데…  
침묵하는 내가 부끄럽기도 했고.  
이따가 아빠랑 같이 투표하러 갈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도 모시고.”

본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하던데...  
우리 가족, 주변 친지 표, 최대한 다 끌어 모아보자.“  
그 말에 루키의 눈가가 붉어졌다.  
뜨거운 것이 코끝을 스쳤고, 시야가 흐려졌다.  
한 줄기 눈물이 뚝, 밥 위로 떨어졌다.  
“왜 울어. 이래서 밥이 넘어가겠어?”  
“아니야... 그냥, 고마워서...”  
루키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수저를 들었다.  
오늘 하루, 단 한 장의 투표지를 지키기 위해  
다시 전장으로 나갈 준비를 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본투표 당일 새벽,  
하나둘씩 투표소 앞에 모여든 동물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루키는 줄을 선 병아리들 속에서 조용히 기도했다.  
‘제발 오늘만큼은... 오늘만큼은 기적이 일어나길...’  
휴대폰을 열었다.  
투표율이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오전 9시, 9.2%... 12시, 22.9%... 사전투표를 합친 오후 1시, 62.1%...”  
루키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마지막 희망이었다.  
저녁 8시. 79.4%의 투표율로 투표가 종료됐다.  
루키는 집으로 돌아와 부리온의 너튜브 방송을 켰다.  
문명방송도, 정중앙방송도 보기 싫었다.  
그들의 '개표쇼'는 이미 연출된 각본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잠시 후,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살랭이 51.7% / 대쪽박쥐 39.3% / 족제비 7.7%”  
심장이 내려앉았다.  
루키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궜다.  
‘이건... 도저히 못 이겨.’  
희망의 끈은, 칠흙 같은 어둠에 삼켜졌다.

자정 무렵.  
당선 확정 자막이 떠올랐다.  
“살랭이 49.4% / 대쪽박쥐 41.1%”  
출구조사보다는 줄어든 수치였지만, 격차는 여전했다.  
무엇보다 뼈아픈 것은 본투표에서 대쪽박쥐가 약 8%포인트 앞섰음에도,  
사전투표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것.

진표연대 채팅방 공지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공지] 63국선 본투표 개표 참관 중 이상 정황 기록 (진표연대 내부 공유용)

- 작성자: 의계
- 일시: 하나림력 2125년 6월 3일 23:57
- 분류: #본투표 #개표참관 #이상징후
- 공개범위: 인증된 진표연대 참관인 및 행동대원 한정

#### 1. 개표 숫자 불일치 현상

- 각 지역 개표소에 설치된 모니터 상 실시간 개표 숫자보다, 표심조율청의 공식 발표 수치가 많음.
- 참관인들이 손으로 직접 계표한 수치보다도 일관되게 더 많은 수치가 표심조율청 집계 발표에 반영됨.
- 한 개표소에서는 모니터에 찍힌 마지막 수치보다 218표가 더 집계되어 발표됨.
- 이 차이는 거의 대부분 살팽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발생.

#### 2. 투표함 이송 과정의 이상 사례

- 규정상 투표함은 봉인 후 차량을 통해 개표장으로 이동해야 함.
- 그러나 복수 개표소에서 돼지들이 직접 투표함을 들고 걸어 나오는 모습 다수 목격됨.
- 참관인이 제지하려 했으나, 표심조율청 직원이 “문제없다”며 묵살.

#### 3. 비정상적인 투표용지 무더기

- 개표소 안에서 신권다발처럼 뿔뿔한 투표용지 묶음 발견.
- 일부는 투표용지끼리 접착제로 붙은 듯 겹쳐져 있음.
- 또 일부는 종이 부스러기가 붙어 있는 채로 나와, 마치 인쇄소에서 갓 찍어낸 상태 그대로인 듯함.
- 해당 투표용지들 대부분이 살팽이 표로 분류됨.

#### 4. 분류기 오류 및 표 쏠림 현상

- 투표지 분류기에서 살팽이 표가 연속으로 3,000장 넘게 쏟아지는 기현상 발생.
- 기계 오류를 의심해 참관인이 중지 요청했지만 “이상 없음”이라는 말만 반복.
- 참관팀이 문제 제기하자, 현장 관리자에 의해 출입 통제당함.

#### 5. 이의 제기 및 기록 방해 행위

- 참관인의 이의 제기 시, 해당 참관인을 개표소 밖으로 유도하거나 출입을 제한함.
- 문제 장면을 촬영하려는 참관인의 휴대폰 사용을 제지하거나, “선거방해죄” 운운하며 압박.
- 한 개표소에서는 현장에 있던 경찰견이 참관인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으려는 시도까지 있었음.

※ 현재까지 이상 정황은 총 78건 접수되었으며, 대부분이 살팽이에게 유리한 방향의 조작 의심 사례임.

※ 자료 및 증거는 중앙서버(고슴도치 운영)의 안전 저장소에 순차 업로드 예정.

루키는 스마트폰 화면을 덮었다.

끝났다.



그동안의 밤샘, 분노, 각성, 거리에서의 외침,  
진표연대에서 나뉘던 다짐,  
그 모든 순간들이...  
순식간에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순간,  
루키는 그 숫자들이 초현실처럼 느껴졌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마치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진실’보다 ‘기만’이 더 강한 세상.  
사실보다 프레임, 증거보다 조작이 앞서는 세상.  
그것이 지금의 하나림왕국이었다.

다음 날 새벽, 진표연대 단체채팅방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투표 조작 의혹 정리해서 언론에 보내야 합니다!”  
“부정선거 항의집회, 오전 7시 대쪽박쥐 캠프 앞에서 시작합니다.”  
루키는 다시 일어섰다.  
병아리들이 대쪽박쥐 캠프 앞으로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진실을 봤습니다!  
당신들은 이 선거가 정당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대쪽박쥐는 기자회견장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혼란을 멈추기 위해...  
하나림왕국의 안정을 위해...  
우리는 선거 결과에 승복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현장에 모였던 병아리들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표정이 사라졌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을 뿐이었다.  
“그럴 줄 알았어...”  
“결국 다 짜고 치는 판이었나?...”  
절망,  
그리고 그 절망을 삼키려는 침묵만이 남았다.  
루키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새벽빛이 조금씩 동쪽 하늘을 밝히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이 희망이 아니라  
거짓이 드리운 먹구름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해서 역사는 또다시 뒤집혔다.  
정의는 박제되었고, 살행이는 웃으며 왕좌에 올랐다.  
환호와 침묵, 그리고 무력한 분노 속에서  
그의 시대는 아무런 저항 없이 시작되었다.

#### 4부 1화. 살팽이의 연

연을 날려본 자는 안다.

연은 처음 띄우기까지가 어렵다.

한 번 바람을 타서 줄만 잘 잡고 있으면

하늘 위를 유유히 떠 있는 듯 보인다.

살팽이의 연도 그랬다.

한날 들개 무리와 어울려 흑류촌의 뒷골목을 전전하던 그가

어느 순간, 하나림 왕국의 하늘 가장 높은 곳에 떠 있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살팽이는 웃으며 말했다.

“흑묘든 백묘든 쥐만 잘 잡으면 그만이지..”

하지만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의 연이 순풍을 타고 오른 것이 아님을.

그 연줄에는 수많은 손이 달려 있었다.

쥐들의 아침, 돼지들의 선동, 판다의 자금,

그리고 표심조율청의 조작까지.

그 모든 거짓을 동력 삼아,

그는 용천사에서 연을 띄웠고

결국 하나림의 정점에 도달했다.

그는 국가의 원수가 되었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었다.

그의 과거는 연줄에 묶여 흑류촌과 용천시의 땅바닥을 끌고 있었다.

유생공이 아닌 유생원 출신이라는 흉흉한 소문,

그의 주변에서 황망하게 죽음을 맞이한 측근들과

그의 과거를 캐려다 비명횡사한 동물의 망령들이

그를 끊임없이 따라다니고 있었다.

“연은 결코 바람을 거스를 수 없어.”

조계가 말했다.

“역풍이 불면, 연은 결국… 추락한다.”

각성한 동물들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살팽이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나는 무너지지 않아. 연줄은 내 손 안에 있어."

취임식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바뀌었다는 순간치고는,

광장은 이상할 정도로 썰렁했다.

모여든 동물들 대부분은

출석을 강요받은 공무원 개들이었고,

돼지들조차 뒷집을 지고 기지개를 켜다.

흑류촌에서 예정됐던 당선 축하 잔치도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전격 취소되었다.  
“그런 자를 위해 연등을 밝힌다고?”  
몇몇 닭은 등을 부수며 외쳤고,  
어떤 노개는 조용히 등을 꺼버렸다.

살팽이는 외교무대에서의 첫 발걸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뜻밖에도, 이글리아의 맥도널드 독수리로부터  
당선 축하 전화는 오지 않았다.  
하루, 이틀, 사흘...  
백수봉의 소통 채널은 굳게 닫혀 있었다.  
궁지에 몰린 돼지들은 애써 웃으며 말했다.  
“그건 시차 때문이야.  
지금쯤이면 독수리도 살팽이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았을 거야.  
기싸움 하는 중이라고!”

그러나 진실은 누구보다 살팽이가 먼저 느끼고 있었다.  
외교무대 첫 데뷔전.  
그를 기다리는 건 화려한 플래시도, 격한 환영도 아니었다.  
사자는 그를 힐끔 보더니 고의인지 실수인지 통역사에게 손을 내밀었고,  
시바견은 얼굴을 찡그리며 시선을 피했다.  
원숭이는 그의 면전에 대고 손가락질을 했고,  
백조는 무안한듯 윙크만 건네고 돌아섰다.  
주변은 가벼운 웃음으로 술렁였다.  
그야말로 께다 놓은 보릿자루였다.  
그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자리를 진정으로 차지한 것이 아니었다.  
각국의 수장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쥐들과 언론은 연일 "성공적인 외교 데뷔 무대"였다며 찬사를 쏟아냈다.  
“시차를 무릅쓰고 밤낮없이 일하는 지도자의 헌신을 본받아야 한다”는 식의 칼럼이 줄을 이었고,  
한 언론은 심지어 “역대급 카리스마”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그러나 진실을 꿰뚫어보는 동물들의 입가에는 실소가 맴돌았다.  
외교의 무대에서 철저히 외면당한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귀국한 살팽이는 가장 먼저 정무청장 지명을 발표했다. 그 이름은 ‘신내림쥐’.  
지난 의선에서 사전투표율을 소수점까지 정확히 예측해  
“신의 계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조롱을 받았던 쥐이다.

뚜렷한 해명도 없이,  
까도 까도 새로운 의혹이 나오는 양파처럼 생긴 외모와 더불어  
‘양파쥐’라는 별명도 얻었다.

그가 정무청장 지명자로 지목되자, 병아리들의 커뮤니티에는 이런 반응이 올라왔다.  
“무당 좋아하던 정의당에서 진짜 무당이 나왔군.”  
“전과범이 정권 요직에?”  
“누가 시킨 거야? चु바오, 아님 절봉?”  
하지만 살랭이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정무청장지명 발표가 끝나고,  
나팔수 쥐가 나와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정작 중요한 인사 검증이나 국정 계획은 뒷전이였다.  
대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살랭이님께서는 어제 저녁 분식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김밥 한 줄, 떡볶이 반 접시, 튀김 두 개, 순대 세 조각을 드셨고,  
밀떡이나 쌀떡이냐는 질문에는 쌀떡이라고 답하셨습니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적막에 휩싸였다.  
누구도 묻지 않았고, 누구도 궁금해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적막을 깨고, 다음날 문명방송 뉴스에는 이런 자막이 떴다.  
"서민의 삶을 체험하는 지도자, 감동의 떡볶이 만찬"

그날 밤, 루키는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았다.  
"코미디가 더 이상 재미없는 이유는 코미디 같은 현실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겠지?"  
"이게 진짜 2125년의 현실이야?"  
"그래도 누군가는 기억하고 알려야 해. 그들이 감추려는 진실을."

그날 이후, 병아리들의 소규모 채팅방들이 하나둘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잊지 않기 위해, 속지 않기 위해.  
그리고, 또다시 싸우기 위해.

하늘 위에 떠 있던 연도,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바람이 바뀌고 있었다.

#### 4부 2화. 노란 돼지들의 모임

"오늘 중요한 인터뷰 촬영이 있는데... 시간 되면 좀 도와줄래?"

부리온의 말에 루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엄 이후, 진실을 추적하던 둘은

어느덧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 있었다.

알고 보니 동갑이었다는 사실도 웃지 못할 인연처럼 다가왔다.

거대한 진실을 찾아가는 길 위에서 인생의 친구를 만난 건,

이 엄혹한 현실 속에서 가장 큰 위안이었다.

약속 장소는 도심 외곽의 오래된 창고였다.

루키는 병아리들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눈앞에는... 여섯 마리의 돼지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털은 모두 묘하게 노란빛을 띠고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가장 덩치가 큰 노란 돼지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루키는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에 흠칫 놀랐다.

“저는 ‘던’이라고 합니다. 노란돼지들의 모임장입니다.”

“노란... 돼지요?”

루키는 어안이 병병한 채 되물었다.

“과거엔 우리도 무비판적으로 살행이와 정의당을 따르던 돼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열혈팬이었던 안티가 더 무서운 법이죠.

노란 털은 각성을 상징합니다.

이제 인터뷰를 시작해 볼까요?”

던은 과거 살행이의 최측근 중 한명이었으나

지금은 가장 맹렬한 저격수가 된 돼지였다.

“살행이는 겉으로는 약자를 위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수많은 비리와 부정부패, 조작과 은폐가 있었고

그의 주변의 많은 동물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똥똥 뭉친 정의당의 쥐들은 그를 무조건적으로 비호하고 있고

그의 측근들은 마치 피라미드 점조직처럼 움직입니다.

살행이는 의식 있고 강단 있는 동물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토 달지 않고 무조건적 복종을 할 수 있는 동물만 곁에 두죠.

하긴 존재감 없던 살행이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도

배후 세력인 추바오국과 절봉국이

그의 수많은 약점들을 손아귀에 틀어쥐고

자국에 유리하게 그를 조종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던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말끝에는 깊은 분노가 실려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곰님의 결단을 지지하며, 각성한 모든 동물들과 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출신의 돼지, 정돈의 차례였다.

“저는 살랭이 부인 홍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제보한 돼지입니다.  
그들은 국가의 예산을 마치 자신의 금고처럼 썼고,  
공무원들을 사노비처럼 부렸습니다.  
저는 세탁 심부름부터 제사상 장보기,  
살랭이 부인 홍씨의 약까지 대리처방 받았습니다.”

그는 과거를 떠올리며 고개를 떨궜다.  
“정의와 공정이란 말이 가장 부끄럽게 들린 시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를 잡은 이는 백돈이었다.  
“저는 정의당의 권리당원이었습니다.  
이 당은 내로남불과 위선, 무능의 결정체였습니다.  
말로는 평등과 포용을 외치지만, 자기편이 아니면 모두 적으로 몰아잡니다.  
저는 살랭이에 대한 합리적 의혹을 제기했을 뿐인데,  
저를 바로 당에서 제명시키더군요.  
그 방식이 꼭 사이비종교와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루키가 고개를 끄덕였다.

“살랭이는 사실상 교주였습니다.  
거짓 선동, 이중 잣대, 무비판적으로 열광하는 추종자들…  
그 모든 것이 바로 살랭이와 정의당의 실체였습니다.”

의돈은 침연호 유족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변호사 출신이었다.  
“살랭이와 정의당은 침연호를 정치적으로 악용했습니다.  
진정한 애도보다는 ‘정치적 무기’로 만들었죠.  
이후엔 사태원 사고, 하카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봉국이 서해에 핵폐수를 흘려보낸 사건엔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황혼공항 사건은 또 어떨까요?”

의돈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혹시 간첩의 지령을 받고 행동하는 건 아닐까요?  
스파이법 개정을 극구 반대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

다음은 모돈의 차례였다.  
그녀는 마약 우유 사건의 피해 학부모였다.

“제 아이가, 마약이 든 우유를 마셨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학원 앞에서 ‘머리가 좋아지는 음료’라고 속여 마시게 했죠.

전국적으로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데,

정의당은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수사 기관도 축소하고 있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던 하나림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쥔 자료들을 들어 보였다.

“게다가 내로남쥐의 자녀 입시비리, 표심조율청 자녀들의 특례채용까지...

도대체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인터뷰에 참여한 돼지는 양돈이었다.

“저는 메로나 펜데믹 시절, 남편을 잃었습니다.

가정적이고 성실하며 누구보다 건강했던 제 남편은

백신을 맞은 날 밤, 급성 심장마비 증상으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끝내 다시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때 저는 세 살짜리 아기 돼지를 키우고 있었고, 뱃속엔 둘째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과 슬픔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둘째 아이를 잃었습니다.

저는 메로나 백신 피해 유가족들과 함께 질병방역사무청과 너구리 정부에

진상규명과 국가차원의 보상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은 단 하나였어요.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당시 질병방역사무청장인 안경여우는 백신이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맞아야 집단면역이 생깁니다.’

‘맞지 않는 동물은 공동체를 위협합니다.’

그렇게 험박하듯 말하던 그녀의 말에,

두려워하며 어쩔 수 없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3차까지 백신을 맞은 동물들이 계속해서 메로나에 걸렸고,

정작 메로나는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집단 내성이 생겨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안경여우가 살행이의 대선 캠프에 합류하더니,

복지건강변영부 장관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더구나 그녀의 남편이 펜데믹 당시

소독제와 입마개 필터업체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배우자의 권한을 이용한 미공개 정보 활용이다.

누군가는 남편을 잃고 아이를 잃었는데,

누군가는 그 고통 위에서 부를 축적했다.’

저는 더 이상 조용히 살 수 없습니다.

이 목소리마저 막으려 한다면, 그게 진짜 범죄입니다.”

루키는 그 자리에서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온 고백은 하나같이 충격적이었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강한 선언이었다.  
‘노란 돼지들’은 이제 깨어난 진실의 목소리였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루키는 부리온에게 조용히 물었다.  
“왜 날 여기에 데려온 거야?”

부리온은 웃으며 말했다.  
“진실을 알려면, 때론 가장 예상 밖의 곳을 들여다봐야 하거든.  
이들이야말로 그 증거야.”



4부 3화. 분수령: NC운동의 서막

넓은 벌판, 연단 앞에 모인 수많은 동물들.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한 눈빛으로 서로를 마주보는 병아리들과 닭들,  
그리고 노란 돼지들과 개구리들. 캥거루들도 보였다.  
무대 뒤, 루키는 심호흡을 반복하며 원고를 다시 펼쳤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마음속의 울림은 오히려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지난 6개월 동안,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예전에는 스펙, 취업, 연애, 주식과 코인…  
그저 나 하나 잘 사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꿈의 계엄 이후,  
이 세상엔 나보다 더 크고 무거운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부정선거, 조작된 진실, 중립을 잃은 언론, 거짓 민주주의.  
하나림은 이미 병들어 있었다.  
꿈이 탄핵당했을 때는 절망했고,  
살행이가 국수로 당선되었을 때는 분노했다.  
하지만 좌절 속에서도 '동틀녘의 새벽이 가장 어둡다'라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렇게 각성한 병아리들과, 탈진한 닭들과, 연대하는 동물들을 하나씩 만났다.  
그리고 오늘, 그 모든 만남과 깨달음의 분수령에 선 것이다.

사회자의 소개멘트가 들렸다.  
“다음 연사는… 진실을 향해 쉽 없이 달려온 청년, 병아리 루키입니다!”  
박수 소리에 등을 밀리듯 연단에 오른 루키.  
마이크 앞에 섰지만 처음 몇 초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고개를 들고, 정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몰랐던 진실을 마주할 때마다  
알을 깨고 나오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곰님은 우리를…  
가장 뼈아픈 방식으로 일깨워주셨습니다.  
저는…  
살행이나 정의당 같은 공공연한 적보다,  
아군인 줄 알았던 애국당의 실체를 보고 더 경악했습니다.  
곰님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애국 동물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NC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New Conservatism. 새로운 보수주의 운동.  
동시에, No Chubao, No Criminal.  
더 이상 조작과 범죄가 통하지 않는 나라,  
진짜 주권을 되찾은 하나님을 만들기 위한 약속입니다.  
공정한 선거, 중립적인 언론, 살아 있는 법치.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되살려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잠시의 정적. 그리고 곧 터지는 환호성과 박수.  
“루키! 루키! NC운동!”  
“하나님을 구하자!!”

수많은 깃발과 피켓이 흔들리는 사이, 연단 뒤에서 조계가 모습을 드러냈다.  
은빛 수염을 기른 늙은 수탉은 천천히 걸어 나와 마이크를 잡았다.  
“우리 젊은 병아리 청년이 아주 멋진 제안을 해 주었습니다.  
살아온 연륜으로 여기에 한 마디 보태겠습니다.  
보수 재건에는 자본이 필요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은… 결국 돈입니다.  
살행이 정권은 우리에게 위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25만원씩 뿌리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닭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선심 쓰듯 뿌리는 돈,  
우리 세금에서 나가는 그 돈,  
결국 미래세대의 빚으로 남게 될 그 돈,  
그냥 소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이 돈을 십시일반 모아 NC재단을 만들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합시다.  
그것이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정권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조계가 물러나고, 세 번째 연사가 등장했다.  
진표연대의 행동대장, 닭 의계였다.  
강단 있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다.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수많은 동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진표연대 대표단은  
이글리아의 선거정의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에서 벌어진 부정선거의 실태를  
국제무대에 알렸습니다.  
이글리아 의회에서도 브리핑을 진행하고,

공식 보고서도 제출했습니다.  
맥도널드 독수리도 이미 정보를 가지고  
이 문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입니다.  
하나림의 동물들, 우리 스스로가 지치지 않고  
이 문제를 계속해서 공론화하고, 감시하고,  
제도 개혁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할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결국… 해낼 것입니다!!!”

루키는 그 연단 옆에서, 무대 아래에서,  
함께 손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는 동물들의 함성 속에서  
조금도 외롭지 않았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싸움'이 아니라  
'재건'이었다.

다음날, 루키와 부리온은 뜻을 같이하는 몇몇 병아리들과 작은 모임을 결성했다.  
장소는 조계가 제공한 작은 마당 한켠,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담쟁이 넝쿨 아래였다.  
“이름은 NC로 하자.”  
부리온이 말했다.  
병아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들 말없이 눈빛을 주고받았다.  
결의와 희망이 그 눈동자 안에 섞여 있었다.  
루키가 준비한 종이를 펴며 말했다.  
“우리의 핵심 아젠다는 다음 여섯 가지입니다.”  
하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공정선거 제도 마련  
둘. 기소청과 재판청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법치주의 회복 운동  
셋. 무분별한 포퓰리즘 복지 반대, 정당한 시장 경쟁 유도  
넷. 언론 및 교육기관의 정치적 중립화 촉구  
다섯. 국산물품 소비 촉진, 신(新)물산장려운동 전개  
여섯. 이글리아와의 동맹 강화를 통한 안보의 가치 재조명  
“이건 단순한 집회나 저항운동이 아니에요.”  
루키가 이어 말했다.  
“이건 세대교체, 아니 시대정신의 전환이에요.  
이 나라를 다시 ‘제 자리’로 되돌리려는 긴 여정입니다.”

그날 밤, 부리온은 준비해온 슬로건과 로고를 단체 채팅방에 공개했다.

"법치와 자유의 방패 - NC"

한눈에 보기에 단단하고 정제된 인상이었다.

붉은 방패 안에 금빛 저울이 중심에 새겨져 있었고,

그 위에는 굵은 서체로 'NC'가 음각되어 있었다.

저울은 공정과 정의, 방패는 자유민주주의와 안보를 의미했다.

"로고, 퍼가도 되나요?"

한 병아리가 웃으며 물었다.

"물론이죠." 부리온은 웃으며 답했다.

"이제 우리가 퍼뜨릴 차례입니다."

그날 이후, SNS에는

'#법치의방패NC', '#NoChubao', '#NoCriminal' #곰의정신을기억하라'는

해시태그가 번지기 시작했다.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며 팔로워 수는 늘어났고,

계정마다 NC 로고를 프로필 사진으로 바꾸는 이들이 등장했다.

"이게 될까?"

누군가는 물었다.

루키는 고개를 저었다.

"단번에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말자.

우린 그저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지치지 말고 꾸준히 계속 가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부리온이 보낸 한 장의 사진이 루키에게 도착했다.

특검 출석 당시, 곰의 양복 깃에 꽂혀 있는 작은 NC 뱃지.

붉은 방패 안에 금빛 저울이 선명하게 빛났다.

순간, 루키는 핸드폰을 꼭 움켜쥐며 눈을 감았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가가 뜨거워졌다.

작지만 강한 그 상징이,

곰이 이 여정을 지지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루키가 속삭이듯 말했다.

"곰님... 시간이 갈수록 저는 더 당신을 믿고 있어요.

위기 때마다 하나림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신 같은 구국의 영웅을 하늘에서 보내주기 때문일 거예요."

밤하늘의 별빛 아래, 낡은 바닥에 둘러앉은 병아리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을 향해 조용히 불씨를 되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NC운동은 역사의 한 장을 열고 있었다.

## 번외1. 호구리 이야기

“내가 진짜 집값 하나 믿고 인생을 걸었는데…”  
개구리와 호구의 사이, 이름하여 호구리.  
정치엔 눈곱만큼도 관심 없고, 뉴스보단 날씨 예보를 더 자주 본다.  
딸 하나 있는 외벌이 가장으로, 성실하고 규칙적인 삶이 전부였다.  
빚도 없고, 투자도 안 했고, 오직 은행 저축만으로 돈을 모아왔다.  
그러다 어느 날.  
“벼락거지래, 우리.  
너구리 정권 들어서 집값이 두 배가 넘게 뛰었대.”  
아내의 말에 머리를 긁적이며 인터넷을 뒤졌다.  
정말이었다.  
어릴 때 놀던 동네가 지금은 ‘억’ 소리 나는 동네가 되어 있었다.  
“그래도 대출은 무섭지 않냐?”  
“당신은 평생 그렇게 가난하게 살 거야?”  
결국 아내의 설득과 눈치, 그리고 딸아이 방을 주고 싶은 마음에  
호구리는 인생 처음으로 ‘영끌’이라는 걸 했다.  
수도권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30년짜리 대출과 함께, 인생의 새 챕터가 열렸다.

1년 후  
정권이 바뀌고 곰이 집권했다.  
“부동산 안정시키겠다고 하더니 진짜로 집값이 떨어지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호구리는 슬금슬금 곰을 욕하기 시작했다.  
“아니, 나라 경제 망하게 하려고 걱정했나.  
내 집값이 반 토막 났어!”  
자신이 꼭지에 집을 산 건 기억에서 지워진 지 오래다.  
호구리는 이자와 원금 변제로 등골이 휘어지는 신세를 한탄하며  
조기대선에서 살랭이에게 투표했다.

살랭이가 당선되고, 신기하게도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내는 울먹였다.  
“둘째가 생겼어… 우리 좀 넓은 데로 가면 안 돼?”  
호구리는 고민 끝에 아파트를 팔기로 한다.  
퇴근 후 찾은 부동산엔 돼지 공인중개사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사장님~ 완전 타이밍 좋으세요. 매수자가 있습니다.”  
“네? 집도 안 보고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합니다.  
특히 이분은… 크으~ 대단한 분이세요.”  
문이 열리자, 매수자 동물이 등장했다.  
커다란 덩치에 안경을 쓴 판다였다.

순간 당황한 호구리, 속으로 생각했다.  
“판다는 좀 그렇지 않나?  
그래도 하나림 동물한테 파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돼지가 웃으며 말했다.  
“사장님, 이 분은 알아주는 큰손이세요.  
게다가 이사비용까지 얹어 주신다잖아요.  
이번에 계약 안 하면 후회하실걸요?”  
잠시 고민하는 호구리.  
곧 스스로를 설득한다.  
“그래, 어차피 누가 사든 돈만 벌면 그만이지...”

집을 팔고 빚을 갚고 세금을 내고 나니  
손에 남은 건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았다.  
“이게 돈 번 거 맞나...?”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살랭이 정부는 대출 규제를 예고했고,  
지금 아니면 다시 집 사기 어렵다는 소문이 돌았다.  
호구리는 부랴부랴 대출을 다시 최대한도로 받았다.  
전보다 조금 더 넓은 평수, 약간 더 좋은 단지의 아파트.  
아내는 기뻐했지만, 호구리는 문득 멍해졌다.  
“난 분명 돈을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다시 빚더미에 올라앉은 걸까?  
이 빚을 다 갚아갈 즈음에는  
은퇴를 해서 수입도 없을 것 같은데...”

이삿짐을 옮기며 주변을 둘러보던 호구리는  
이상한 낯새를 느꼈다.  
이웃의 얼굴 대부분이... 판다였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들리는 대화도 낯설었다.  
“이번에도 아들 이름으로 샀대.”  
“위쪽 라인은 거의 다 우리가 쓸 거예요.”  
순간 식은땀이 흐른다.  
“이 동네,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창밖을 본 호구리의 눈에 들어온 건  
표심조율청 앞에서 뭔가를 외치는 병아리들의 무리였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는 이곳까지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게... 맞는 걸까?”

## 번외2. 썬거루 맘 이야기

한때, 썬거루는 누구보다 자유롭고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대기업 마케팅팀 팀장이자 '골드미스'로 불리던 그녀는  
올로(YOLO) 세대의 아이콘이었다.  
일에 치여 살아가는 동료들과 달리,  
썬거루는 연차를 계획적으로 소진하며 계절마다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주말이면 인별에 올릴 만한 핫플 맛집 탐방을 즐겼다.  
주위 친구들은 그녀의 삶을 부러워했고,  
결혼을 한 친구들조차 종종 하소연하며 말했다.  
“니가 진짜 인생을 즐기는 거야.  
우리는 그냥 집안일의 노예야.”  
TV를 켜면 이혼 소송, 양육권 분쟁, 황혼이혼 프로그램들만 쏟아졌다.  
썬거루는 그런 걸 보며 자조 섞인 농담을 던지곤 했다.  
“결혼이 지옥의 문이라면  
난 그 문 안 열고 멋지게 살 거야.”  
하지만 절친들이 하나둘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으면서 주말 약속이 줄어들고,  
집에 홀로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고요한 밤, 넓은 집 거실에 앉아 문득 생각했다.  
“나는 과연 외롭지 않은 걸까?”

고민 끝에 썬거루는 결혼정보회사를 등록했고,  
소개팅과 맞선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운명처럼 착하고 성실한 남편을 만났고,  
짧지 않은 연애 끝에 둘은 부부가 되었다.  
가정을 꾸리고 보니, 그간 느끼지 못했던 따뜻한 울타리가 생겼고  
노산의 부담이 있었지만 서둘러 아이를 가지기로 결심했다.  
임신과 출산은 말 그대로 전쟁이었다.  
지독한 입덧, 고위험군 진단, 그리고 진통 끝에 태어난 작은 생명.  
썬거루는 아기를 처음 품에 안고 울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걸 바칠 수 있어."

직장 복귀를 서둘러야 했던 그녀는,  
신속히 베이비시터를 구했고  
업체에서 파견한 시터는  
하나림어가 가능한 판다였다.  
약간 불안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기의 팔에 붉게 멍든 자국이 보였다.  
그러고 보니 아이가 유달리 울고 보채는 일이 많아졌다.

갱거루는 설치해 둔 CCTV를 돌려보기 시작했고,  
그 화면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다.  
무력하게 학대당하는 아기.  
그 장면을 보고 갱거루는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판다는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다.  
더 충격적인 건, 그 판다가 기존에도 학대 전력이 있었고,  
고용한 업체 대표는 चु바오국 출신 귀화 판다였다는 사실이었다.  
경찰 조사 이후, 갱거루는 죄책감과 분노에 사로잡혔다.

결국 오랜 커리어를 접고 전업맘이 되었다.  
그때부터 그녀는 오직 아이만을 위해 살았다.  
정서불안에 시달리던 아기는 시간이 지나자 점차 안정을 되찾았고,  
갱거루는 아이에게 좋은 것만 먹이고 싶어 이유식부터 직접 만들었다.  
마트에 가면 이제 갱거루의 눈은 습관처럼 원산지와 성분표부터 훑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제품엔 “made in Chubao”가 붙어 있었다.  
아기용품은 물론 생활용품, 먹거리까지도.  
갱거루는 비싸도, 힘들어도 하나림산 제품만 고집했지만,  
그마저도 하나둘씩 마켓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결국, 남편과 함께 주말마다 작은 농장을 빌려 직접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아기 장난감도 목공 클래스에 다니며 손수 만들었다.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느꼈지만,  
그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

어느 날, 아기가 낮잠에 들고, 조용해진 집 안.  
갱거루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아 스마트폰을 들었다.  
별생각 없이 틀어본 영상에서, 익숙한 문장이 흘러나왔다.  
“우리는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그 말에 갱거루의 손가락이 멈췄다.  
영상 속 연사는 젊은 병아리였다.  
땀이 맺힌 이마, 결연한 눈빛,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외쳤다.  
“싸구려 물건, 거짓뉴스, 교육 아닌 세뇌, 정의가 사라진 법정…  
이게 하나림 왕국이 아이들에게 남길 유산입니까?”  
그 말에 갱거루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다.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었다.  
베이비시터에게 아이를 맡긴 죄책감, 믿고 산 제품에서 검출된 유해물질,  
국산 제품을 찾으려다가 돌아서야 했던 수많은 마트의 진열대들.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무언가 점점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다.  
다음 영상은 ‘신물산장려운동’ 소개 영상이었다.  
한 병아리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우리는 거창한 걸 하자는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림에서 만든 물건을 쓰자는 겁니다.  
내 아이의 밥상만이라도, 우리 손으로 지켜내자는 겁니다.”

그날 밤, 켄거루는 오래전 회사에서 배운 슬로건을 떠올렸다.  
“소비는 곧 투표다.”  
바로 그 순간, 켄거루는 깨달았다.  
지금 이 세상은 방치의 결과였다고.  
무관심한 시민, 외면한 엄마, 침묵한 소비자.  
그 모두가 만든 결과였다.  
“이제라도 바뀌야 해.  
적어도 우리 아이의 세상은...”

다음 날, 켄거루는 NC운동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했고,  
몇 주 후, ‘켄거루맘 대표’라는 이름으로 신물산장려운동 연설무대에 선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에는 나 하나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 알겠더군요.  
세상이 함께 건강해야, 우리 아이도 안전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엄마로서 이 운동에 참여합니다.  
모든 켄거루맘, 병아리맘, 개구리맘, 돼지맘...  
이제는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